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교육목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성취능력을 교육목표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확립한다.
-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자기개발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02 대학소식

-Gregory A. Storch교수 초청 ESAC특강

03 동문인터뷰

-일곱 빛깔, 그 이상의 빛을 지닌 여성 리더 (김학숙 선배님 인터뷰)

04 기획기사

-LAB소개: 정성철, 김한수, 조인호 교수팀

05 학생소식

-학생수기 EMC를 다녀와서
-동아리 탐방
-학생단신
-학생회장 퇴임사

06 교수소식

-교수 수상 및 업적

07 동창소식

-2016년도 가을문화유적답사

08 행사알림

-학생 행사
-동창회 행사

대학소식



Gregory A. Storch 교수 초청 ESAC 특강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학장 김경효)은 11월 16일(수) 의과대학 김옥길 홀에서 Gregory A. Storch(MD,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본 강연은 ESAC(Ewha Social Active Communicati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료계 및 사회 각 분야 인사의 강연을 통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대외 의사소통능력 제고를 목표로 기획됐다. 감염학 분야의 권위자인 Gregory A. Storch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BA, NYU에서 MD를 취득했으며, 현재 워싱턴대학 의과대학(WUSM)의 Division of Pediatric Laboratory Medicine 및 St. Louis Children's Hospital의 Clinical Laboratories를 이끌고 있다. 특히 미상의 바이러스 감염 및 감염질환의 진단 진단에 관한 다양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오랜 전부터 수행해 온 세계적인 석학이다.

〈Infectious Disease Genomics〉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사람이나 동물의 어떤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는 메타게놈(Metagenomics) 시퀀싱 △사람 몸에 항상 존재하는 바이러스인 Viral Normal Flora 연구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를 통한 원인 미상의 증상 진단 사례 △새로운 바이러스 발견 사례 등 흥미로운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신의 생소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이 영어로 질문하는 등 주어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의 큰 열기를 띄었다. Storch 교수는 학생들의 수준 높은 질문에 대해 일일이 칭찬하며, 게놈 시퀀싱 기법이 아직 고가인 점 등 연구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여한 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실제 환자 케이스를 통해 어떻게 NGS가 환자의 진단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다.



동문인터뷰



일곱 빛깔,

그 이상의 빛을 지닌 여성 리더

이화여대 의과대학 김화숙 선배님(20회 졸업, 내과) 인터뷰



학생기자 송지혜(의전원 2학년)와 허수경(의전원 2학년)은 서초구에 위치한 ‘김화내과’를 방문하였다. 김화내과의 김화숙 선배님(20회 졸업)은 한 국여자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사회에서 훌륭한 여성 리더로서 활약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곳에서 선배님의 삶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었다.

Q 의대를 졸업하시고 국립의료원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그 당시 동대문 병원은 산부인과만 환자가 많고 다른 과는 환자가 적었습니다. 국립의료원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 국립의료원은 6.25사변 이후에 덴마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나라들의 지원을 통해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최첨단이었고, 다양한 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 과정도 전부 영어로 진행하는 등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돌아보고 너무 좋아서 국립의료원에 지원하게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까지 국립의료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Q 국립의료원에 계속 남아있지 않으시고 '김화내과'로 개원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립의료원에서 14년을 열심히 진료했습니다. 제가 전공한 혈액종양이 그때만 해도 골수이식치료가 없고 항암치료를 하다가 환자가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환자와의 잦은 이별이 힘들었고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만만치 않아 개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립의료원 일을 병행했기 때문에 병원에 제 이름을 걸지 못하고 ‘김화의원’으로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 이름이 ‘김화숙 내과’가 아닌 ‘김화내과’가 된 사연이 있어요.



Q 학문적 열망이 대단하셨던 것 같은데 국립의료원을 그만두신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셨나요?

A 국립의료원에 전국적으로 환자가 다 모여서 다양한 특이 케이스가 많았는데, hairy cell leukemia와 mixed connective tissue disease(MCTD)에 관한 한국 최초의 케이스를 제가 발표했습니다. MCTD 환자는 국내에서는 진단이 안 되어서, 피를 들고 외국 대학교까지 들고가서 진단을 내릴 정도로 열정이 있었기에 저도 개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개원하니까 환자가 전부 살아서 돌아오고 환자를 계속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 여자이기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

A 전문직 여의사로서의 삶에서 출산과 육아는 시부모, 친정부모님이나 도우미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4자녀를 키우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회장으로 역임하셨던 한국여자의사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참된 의사로서, 현명한 여자로서, 건강사회의 지도자로서 ▲ 여의사의 역할 증대 및 사회 참여 ▲ 학술심포지엄 ▲ 학술 의욕 고취 및 연수 교육 ▲ 멘토링을 통한 여자의대생, 젊은 여의사의 진로 결정 및 일-가정 양립 돕기 ▲ 의대·의전원 여학생, 여전공의 교육/수련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지원 ▲ 공보, 정보 출간 사업 ▲ 여성 의료인과의 교류 ▲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교류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그들과의 동행' 책을 발간하셨는데 책을 내게된 계기와 간단하게 책을 소개해주신다면?

A 시간을 쪼개서 5명의 이대 선후배 의사들이 모여서 한달에 한번 글 수업을 받았습니다. 2년 정도 수업을 받으면서 썼던 수필들 중에 일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진료실의 일들을 모아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변비, 선크림을 발라야할 것인가 등 백혈병 환자 이야기를 썼고,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청소년이 임신해서 온 이야기, 수면장애 환자 이야기를 쓰는 등 이들을 모아서 의학적으로 쉽게 풀어서 쓴 수필들입니다.

Q 젊은 의사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A 젊은 의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임상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넓게 보는 것이 좋아요. 전문의 취득 후에 정계, 공무원, 방송, 언론, 기초,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면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Q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A '후회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70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동안 숨돌릴 새 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인간, 여성, 전문직, 아내, 딸, 며느리, 어머니' 이렇게 7가지의 위치에서 무지개처럼 일곱가지 빛깔을 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은 인간다워야 하고, 전문직 여성으로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환자들에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목표는 다르겠지만 각자의 목표에 따라 후회없는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후회없이 하며 살아가세요.

김화숙 선배님께서 일곱 가지 빛깔이 아닌 수백 가지 빛깔을 내는 아름다운 여의사이셨다. 아직도 하고 싶으신 일이 너무나도 많으시다는 선배님의 열정이 이렇게 많은 빛깔을 내게 만든 원동력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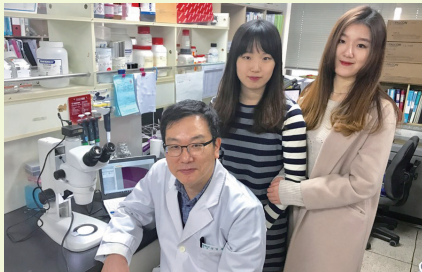
〈의전원 2학년 송지혜, 허수경 기자〉



동문인터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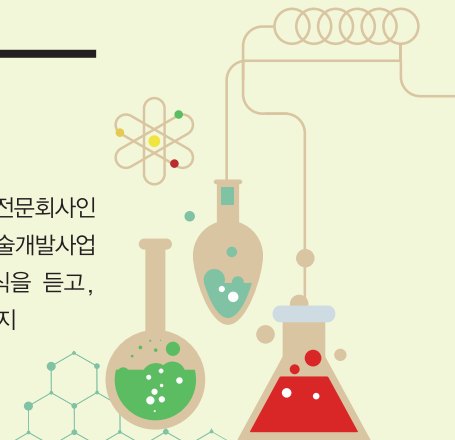
기획기사 - LAB소개



정성철, 김한수, 조인호 교수팀

생화학교실 정성철 교수 인터뷰

지난 11월초 정성철, 김한수, 조인호 교수팀과 세포치료제 개발 전문회사인 녹십자랩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보건복지부의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사업 지원과제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과제책임자인 생화학교실 정성철 교수를 만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내용을 듣고 실험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Q 주로 하시는 연구는 무엇입니까?

A 저희 연구팀은 편도선절제술 후 절제된 편도조직을 줄기세포로 분리, 확립 그리고 적절한 분화를 유도하여 임상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추가적인 침습적 기술이 필요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골수나 지방조직, 탯줄 등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입니다. 편도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분리, 확립한 경우는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이며, 전세계적으로도 보고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편도유래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팀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포를 굳이 중간엽줄기세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편도유래 줄기세포는 중간엽줄기세포 보다는 좀 더 미분화된 원시적인 상태로, 골세포, 연골세포, 지방세포로의 분화는 물론 부갑상선호르몬, 인슐린 등을 분비하는 세포 및 신경세포, 근육세포로도 용이하게 분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고세병, 파브리병과 같은 유전성대사질환과 샤르코-마리-투스병 등의 신경계 희귀질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과제에 선정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A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수술 등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은 부갑상선호르몬의 분비가 결핍되는 질환으로 평생 동안 칼슘 및 비타민 D를 공급을 받거나, 재조합 부갑상선호르몬 제재를 매일 투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의 연구계획은 부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를 환자에게 1회 주사투여 후 최소한 6개월 정도 호르몬 분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분화시킨 세포는 체내 혈중 칼슘농도에 따라 부갑상선호르몬 분비량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임상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십자랩셀과 함께 3년 이내에 임상시험에 진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연구팀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신지요?

A 처음에는 소아과학교실의 유경하 교수님, 이비인후과학교실의 김한수 교수님, 분자의과학교실의 조인호 교수님, 그리고 미생물학교실의 우소연 교수님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확립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후에 저와 생화학교실의 박주원 교수님, 내과학교실의 정성애 교수님, 정형외과학교실의 신상진 교수님 등이 편도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 과제는 조인호, 김한수 교수님과 제가 세포치료제 전문회사인 녹십자랩셀 연구소와 함께 과제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Q 향후 추구하고 계신 연구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이번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시판허가가 된다면 환자에게서 결핍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보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줄기세포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녹십자랩셀과 협력연구를 통하여 연구성과를 실용화, 산업화를 하는 노후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편도유래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골다공증, 아토피성피부염, 염증성장질환, 골결손, 말초신경손상 등에 대한 세포치료제 개발을 계속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Q 의사가 된 후에도 기초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의전원생과 의대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A 기초의학 교과목에서 습득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전에 대한 이해를 임상교과를 공부하고 수련하는 과정에서도 지적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적용 및 응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된 후에는 임상현장에서 기존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이를 기초연구와 연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연구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함께 팀을 이루고 기초와 임상, 그리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성과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 연구현장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학생소식

학생수기 - EMC를 다녀와서

의전원 1학년 표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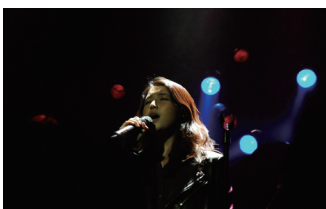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큰 간절함과 열망으로 이화해외의료봉사단(EMC, Ewha Medical Care)에 지원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크에서의

7일은 정말 금방 지나갔습니다. 특히 그 정신 없던 병원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장바닥 같았던 봉사 첫날, 저는 “접수 이동”을 맡아 환자들을 이끌고 접수방 문 앞의 인파를 뚫으며, 없는 길을 만들어 지나다녀야 했던 리모 모세 역할을 했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만큼 그 순간이 기억에 참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균 교수님 방에서 힐링 진료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많이 환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지만, 지극정성으로 진료 보시는 교수님을 보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박미혜 교수님께서 진료하시는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많이 웃어주시고 영상을 보며 하나하나 설명해주셔서 감사했고, 환자들과 대화하며 진료하시는 모습에 감탄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국 봉사 때에도 약국부 규원 왕언니께서 제가 여쭙볼 때마다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무엇보다 먹을 것들이 많아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끝난 뒤 모두가 녹초가 된 상태로 약국방에 모여있던 그 때의 순간이 참으로 애뜻하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 나누었던 짧은 격려의 말들이 저희 모두를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엮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생님들과 함께하며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모습들을 많이 담아왔다는 것과 든든한 지지자 선생님들 덕분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풍요로워졌다는 것이 저를 참으로 벅차게 하였습니다. 봉사지에서의 순간들과 인연들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곳에서의 일주일들 곱씹고 또 곱씹으며 지낼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우리 EMC 모든 단원들이 그림과 애뜻하여 귀국하자마자 EMC 우즈베키스탄 팀 단체 카톡방 이름을 “우즈베크 가족들♡” 이라고 바꿨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리 탐방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밴드동아리 Infrared



Infrared(지도교수 : 김명현 교수님(신경외과), 동아리장 : 유선아(의전원 2학년))는 의예과 1학년부터 의전원 2학년까지 40여명이 함께하는 밴드동아리입니다. Infrared의 가장 큰 공식행사는

8월 초에 있는 정기공연으로, 매해 여름방학에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서게

됩니다. 연습기간 동안 같은 학년 동기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년이 하나의 멋진 무대를 위해 같이 곡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후배, 동기와 음악을 나누고, 힘들지만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행사로는 매년 10월에 하는 ‘의대밴드연합’ 공연이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카톨릭대, 울산대 의대의 밴드와 함께하는 의대밴드 연합 공연은 타학교와 교류를 함과 동시에 운영기수인 2학년들이 마지막으로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입니다. 그동안 Infrared 밴드 활동을 하면서 향상된 악기 실력을 선보이고, 그동안의 활동을 멋지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외에도 예과생들끼리 다른 학교 밴드와 연합을 해서 공연에 서기도 하고, 학기 중 행림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Infrared는 학업에 치진 많은 학우들에게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주고, 음악을 하면서 동기들, 선후배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의전원 2학년 허수경 기자〉

학생단신

행림제



지난 10월 21일 금요일, 목동 의과대학 내 김옥길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축제인 행림제가 개최되었다. 제48대 학생회 ‘하모니’가 주최하고, 이화여대 의과대학/의학

전문대학원 동창회의 후원 하에 열린 올해 축제는 바자회, 공연 등 다양한 알찬 프로그램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1부 행사는 검도 동아리 화검랑, 피아노 연주 동아리 에뛰드, 댄스 동아리 8 seconds, 총 3개 교내 동아리들의 공연으로 서문을 열었다. 본과 1학년 및 예과 1학년 신입생들과 기존 부원들이 1년간 열심히 쌓아 온 실력을 뽐낸 화려한 공연은 관람석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진 장기자랑 순서에서는 본인이 자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장기를 뽐내는 지원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춤·노래·합창 등 끼가 넘치는 모습에 눈을 땔 수 없었다. 이후 30분간의 인터미션에서도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진행되었던 바자회를 마무리하고, 사진 앙케이트에 투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학사 일정으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선후배끼리 간만에 담소를 나누거나, 기부 목적으로 마련된 간식 코너에서는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시는 등 정겨운 모습이 이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교내 밴드동아리인 인프라레드의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이후에 찬조 공연을 위해 방문한 전문그룹에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음악 실력에 학생들 모두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더불어 2부의 마지막이자 행림제의 대미를 장식한 암 환우 돕기 자선경매에서는 교수님들께서 기부해 주신 미용 용품, 잡화, 가전제품 등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인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했다. 폭발적인 관

심을 보여 준 학생들 덕분에 자선경매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이어진 경품 추첨으로 2016년도 행림제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번 축제를 통해 행림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직원분들까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학우들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한 행림제의 내년을 기약해 본다.

〈의예과 2학년 김수빈 기자〉

학생회장 퇴임사

학생회장에서 물러나며-의전원 2학년 도래미



2016년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였다. 작년 이맘때 쯤이었다. 전 학생회장이 차기회장 지원자를 찾는다고 말했을 때, 나는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다. 학생회장을 해보고 싶었다. 대학 시절에는 의전원 입시를 위해 학점을 챙겨야 해서, 의전원 1학년 때는 쉴 새 없이 계속 몰아치는 시험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고, 인생의 나중으로 미루기 바빴다. 그러나 이번은 아니었다. 내가 도전할 차례였다. 함께 해 줄 좋은 동료들과 선배들의 조언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힘들 것을 각오하고 시작했지만 막상 일을 맡게 되니 막막함이 앞섰다. 체육대회, 행림제, 국시응원, 시험간식준비 등 일을 하나씩 끝낼 때마다 해냈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 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괴로운 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들은 나에게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는 시간이었다. 바쁜 학업에 쫓겨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학생회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성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 내가 무사히 일 년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학생회 사람들 덕분이다. 내 부족한 리더십에도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주고, 속상할 때 나보다 더 슬퍼해주고 위로해준 귀한 사람들이다. 이 글을 통해 학생회 사람들에게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꼭 전해주고 싶다. 학생회장으로서의 일 년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고 부끄러운 선택도 있었지만 그 경험은 내게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내 가치와 신념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진짜 의사가 되어 생명이라는 더 큰 책임이 부여되기 전에 생각을 정립하고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해 본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알립니다.
차기 49대 의전원 학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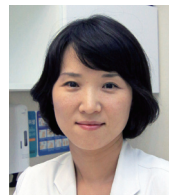
박지향(회장), 전소현(부회장)
고혜진, 박조은, 방나윤, 배정현
장다연, 전수연, 정수영, 현승연

교수소식



교수 수상 및 업적

01 내과학교실 정혜경 교수, 2016 학술 연구상 수상



내과학(소화기)교실 정혜경 교수가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에서 '식도암 임상역학의 추이 분석: 다기관 병원 코호트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로 2016 학술 연구상을 수상했다. 정혜경 교수는 식도암에 대한 국내에서 조직학적 아형(subtype)에 따른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식도암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국내 현황 파악 및 식도암 치료의 효용성에 대해 연구해 추후 국가적 수준의 적절한 식도암 치료 지침을 도출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2 이사라 교수,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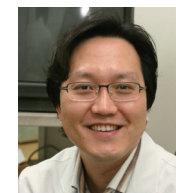
산부인과학교실 이사라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102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사라 교수는 세계적으로 20례밖에 보고되지 않은 외음부 우측상 황색종을 차세대 유전자분석기법(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전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시행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었던 외음부 우측상황색종의 후보 유전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03 김승철 의무부총장, 대한부인종양학회 차기 회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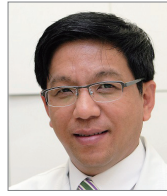
김승철 의무부총장(산부인과학교실)이 대한부인종양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김승철 의무부총장은 지난 10월 21일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부인종양학회 제31차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8년부터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되었다.

04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복지부 첨단 의료기술 개발 사업 연구비 수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개발하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정부 지원 과제로 선정돼 5년간 연 5억씩, 총 25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성철(생화학교실), 조인호(분자외과학

교실), 김한수(이비인후과교실) 교수팀이 개발하고 있는 부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의 첨단 의료기술 개발 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부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성철, 조인호, 김한수 교수팀은 편도선 수술로 버려지는 조직에서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 부갑상선세포로 재생시키는 부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과사질환 치료연구센터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 '비스포스포네이트 및 골 흡수 억제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의 악골괴사증 발생률'을 통해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05 신경과학교실 최경규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송파의학상 수상



신경과학교실 최경규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35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송파의학상을 수상했다. 송파의학상은 지난 2011년 제정돼 학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경규 교수는 대한신경과학회 제32대 회장으로 1년간 학회를 이끌며 회원 간 다양한 임상 정보 교류 및 학술적 토론 활성화를 통해 학회 발전은 물론 환자들의 치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치료 지침들을 개발하는 데 힘 쏟은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06 김선종 교수팀, 우수 구연상, 우수 포스터상 잇달아 수상

치과학교실 김선종 교수팀은 최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과 우수 포스터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김선종 교수팀은 이대목동병원 난치성 악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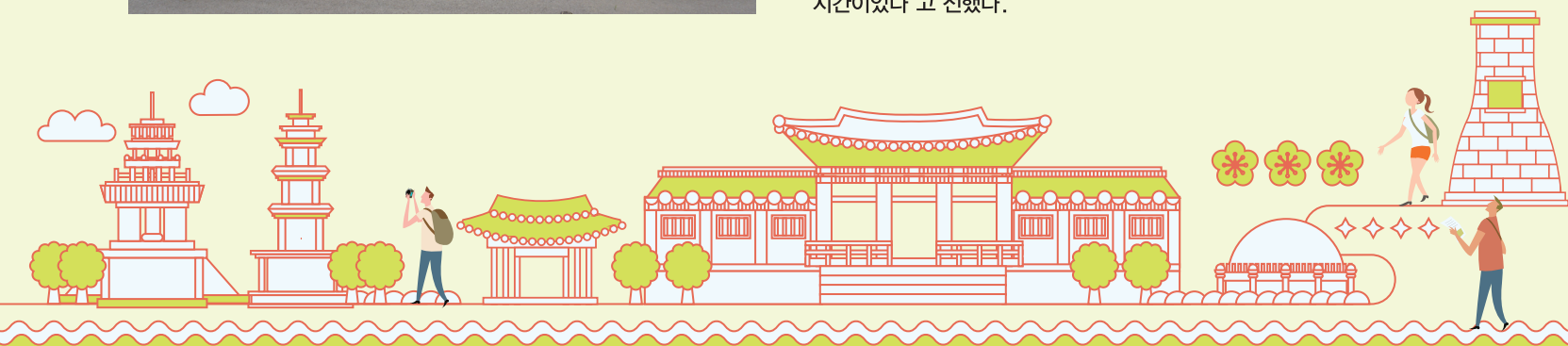
동창소식



2016년도 가을문화유적답사



이화의대동창회(회장 오혜숙)는 지난 10월 16일 '2016년도 가을문화유적답사' 행사를 실시했다. 강원도 영월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75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단종, 김삿갓 관련 주요 유적지를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다. 단종에 대한 역사적 배경 및 문화유적지에 대한 안혜선 동문의 흥미진진한 설명으로 시작된 일정은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 단종의 능인 장릉, 단종이 '신선'이라 부른 선돌을 거쳐, '난고' 김삿갓의 묘와 유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다. 행사에 참여한 39회 박미혜 동문은 "내용이 짝 찬 한편의 뮤지컬을 본 듯한 하루였으며, 선후배 동기들과 즐겁게 보낸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행사알림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및 졸업생 축하 파티

• 2017. 2. 10(금) 11:00, 의학관 김옥길홀



학생 행사

-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17. 2. 16(목) ~ 17(금)
- 의학과 진학 오리엔테이션 : 2017. 2. 20(월)
- 의예과 수료식 및 의학과 진입식 : 2017. 2. 27(월)

동창회 행사 (문의 : 02-2650-5782)

- 제51차 정기총회
2017. 3. 4(토) 16:30,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베르트, 모차르트홀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변성완(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김윤진(정보관리부 차장), 김범산(정보관리부 차장), 정오훈, 정호영

학생기자단 송지혜, 허수경, 김수빈, 이주연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2018년 완공예정인 마곡지구 새병원(좌) 및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우)